



自然公園과 野生鳥〈31〉

알락할미새

- 학명 *Motacilla alba leucopsis*
- 영명 White-faced wagtail

우 수 경칩을 지난 한반도의 대지는 이
미 봄기운이 감돈다.

남녘의 매화며 유채는 제철을 만나 앞다
투어 피고 물논의 양지 바른 이랑에도 들
꽃들이 정신없이 돌아난다.

봄을 맞는 이땅의 모든 삼라만상이 화사
하게 전개될 즈음이면 성급하게 도래한 알
락할미새는 긴꼬리를 깎죽대며 개울을 배
회한다.

알락할미새는 여름철새이다.

통상 강가나 호수, 개울이나 논같은 물가에 서식하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항상 꼬리를 상하로 흔들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알아 차릴수가 있다.

십수년전 태능의 배밭에는 동남아시아로 떠날 알락할미새들이 수천마리씩 무리를 지어 잠자리를 하였던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 보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일부는 월동지인 동남아시아로 가지를 앓고 남쪽의 섬지방이나 남해안 언저리에서 월동을 하는 개체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이는데 이는 필시 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공해병을 앓는 새들이 아닌가 사료되기도 한다.

비단 이 알락할미새 뿐만 아니라 제비, 백로, 왜가리 같은 여름철새들이 남부에서 이동기에 낙오되어 머무는 개체들이 늘어 나는데 대개 허약한 체질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 조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20여년 살아온 우리 앞집의 기와집 지붕위에 예비로 쌓아둔 기와장 밑에는 매년 봄철에 10여년전 부터 알락할미새 한쌍이 날아와 번식을 해왔는데 재작년에 3층 건물로 신축을 한 이후에도 앞집지붕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

단히 귀소본능이 높은 새로 치부하게 되었다.

알락할미새 등지의 보편형은 돌출대의 틈이나 개울가의 바위틈에다 마른풀잎과 동물의 깃털로 접시형으로 지어 한배에 5~6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단 부화가 된 어린새는 곤충으로 기른다.

어미새로 부터 곤충을 받아 먹은 어린 새는 우무질에 쌓인 배설물을 바로 배설하는데 이 배설물을 물어다 멀리 버리는 알락할미새의 지혜는 놀라웁다.

배설물이 쌓이면 등지가 노출이 되기 쉽고 또 배설물에서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너무 잘 알아차린 알락할미새는 이렇게 종족 유지의 슬기를 매년 행하고 있다. ▲▲



글·사진 李正雨

(삼육대학교수·동서조류연구소장)